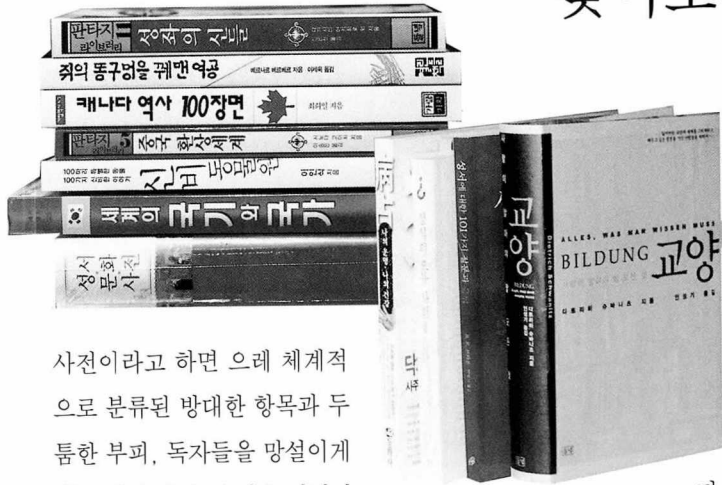


'찾아보는' 사전에서 '읽는' 사전으로 나아가는 사전식 단행본들

다양한 주제와 깊이 있는 내용 자랑해



사전이라고 하면 으레 체계적으로 분류된 방대한 항목과 두툽한 부피, 독자들을 망설이게 하는 비싼 가격, 수많은 집필진과 막대한 제작경비 등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그런데 최근 서점가에는 이런 경직된 사전의 틀을 과감히 깨고 단행본식으로 사전의 모양새를 갖춘 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문사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사전식 단행본은 인문과학, 어린이, 종교, 건강·의학, 예술 등 다양한 범주와 별, 색, 괴물, 일상생활 등 모든 주제를 재료로 삼는다. 이들은 한 질의 양만 봐도 상당한 시리즈를 이루거나, 제법 두툽한 양장 단행본으로 '일반적인 사전'의 모양새를 갖추기도 한다. 그러나 독특한 내용담게 의피도 파격적인 책들이 대부분이다.

양과 질에서 일반사전 능가해

가람기획이 1993년부터 펴내고 있는 <한권으로 보는> 시리즈와 들녘의 <판타지 라이브러리> 시리즈는 사전 모음의 대표로 꼽을 수 있다. <한권으로 보는> 시리즈는 1993년 <한권으로 보는 세계사 100장면>(박은봉)을 필두로 지난 6월에 <한권으로 보는 캐나다 역사 100장면>(최희일)을 펴냈고, 곧 나올 <한권으로 보는 서양음악사 100장면>(박을미)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21권을 출간했는데, 역사를 다루는 시리즈답게 공정하고 빈틈없는 시각으로 많은 정보를 차분하게 정리했다.

<판타지 라이브러리> 시리즈는 판타지의 원류인 동·서양의 신화와 전설을 망라해 판

타지 속 인물과 신, 요정은 물론 괴물까지 그 역할과 유래,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2000년 1월에 첫 책인

<판타지의 주인공들>(다케루베 노부아키 외, 임희선)을 선보였고, <중국 환상세계>(시노다 고이치, 이송은), <성좌의 신들>(다가시마 아키히로, 신은진)을 거쳐 <무훈의 칼날>(이치카와 사다하루, 이규원)까지 모두 24권이 나왔다. 낯선 내용과 익숙하지 않은 그림들이 더욱 눈길을 끈다.

사전의 주무대는 어린이와 종교분야고 그 진수는 역술서적에서 발견할 수 있다. 어린이 책에 사전류가 많은 것은 한꺼번에 많은 것을, 게다가 체계적으로 알고 싶은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교부문은 여러 경전과 <성서> 등 따르고 해석해야 할 텍스트가 있어, 해설서 역할을 하는 사전이 꼭 필요하다. 역술서는 서가의 책이 대부분 사전일 정도로 대상과 접근방법, 비범한 견해까지 내용은 개성이 넘치는데도, 형식은 예외 없이 잘 정리된 사전이다.

어린이 사전은 한국어린이교육연구원에서 펴낸 <세계의 국기와 국가>(편집부)와 <신비동물원>(이인식, 김영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종교분야에서는 <성서문화사전>(다니엘 푸이유 외, 김애련, 숲)과 <성서에 대한 101가지 질문과 응답>(R. E. 브라운, 박영식, 바오로딸)이 근작인데, <성서에 대한...>에서 볼 수 있듯 문답식 사전이 주류다. 역술서인 <돈과 건강을 확 잡는 꿈 해몽 대사전>(유화정, 예가)과 <병점 나의 운명 나의 건강>(정수호, 동학사)은 제목부터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가벼운 백과사전 지향해

어린이, 종교분야에 못지 않게 인문분야에서도 사전이 많이 나오고 있다. <상식의 오류사전(1~2)>(발터 크래머 외, 박영구 외, 경당), 클라우스 발터의 <인류 최대의 착각과 오류사전>(안미현, 해냄), 디트리히 슈바니츠가 쓴 <교양>(인성기, 들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쥐의 똥구멍을 꿰맨 여공>(이세욱, 열린책들) 등이 대표적이다. <...오류사전>은 모두 '분명한 오해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모아둔 책이다. 기술, 의학 등 명백함을 근거로 하는 영역부터 통속적인 신화, 신문의 오보까지 잘못된 상식과 지식 사이를 가로지른다. <교양>은 '지식'과 '능력'으로 크게 나뉘 교양인이 되는 데 중요한 지식과 상식을 요약한다. <쥐의 똥구멍을 꿰맨 여공>은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의 개정증보판으로 지은이가 심대 때부터 모은 다양한 자료를 집대성해 '좀 가벼운 백과사전'으로 만들었다.

가람기획의 양은하 부장은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전이 출간되는 현상을 독자들의 성향과 사전의 역할변화로 설명한다. "독자들은 쉽고 재미있으며 그림도 많은, 교양에 도움이 될 책을 찾는다. 그래서 정보량만도 어마어마한 사전들이 '이따금 찾아보는 사전'에서 '재미있게 읽는 사전'으로, 즉 읽을거리 많은 교양서로 변모하는 것이다"고 말한다.

사전의 최대 덕목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한 손에 쥌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요즘처럼 남다른 감각으로 읽기 편하게 만드는 지은이와 편집자의 노력 덕분에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새 사전의 등장을 손꼽아 기다리게 한다. —차정신기자